

# 지상진료실

## 위축성 편평태선

Atrophic type of lichen planus

서울치대 구강진단학교실

이승우 · 김연중

과거에는 피부 병소가 존재할 때 oral lichen planus가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의하면 oral lichen planus는 피부 병소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발생 가능하다. 피부 병소를 동반하는 경우는 32%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다. 소개된 환자는 57세의 여성으로 좌측 협점막에 특징적인 atrophic lichen planus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상적 특징은 상피의 위축에 의해 점막이 붉은 색을 띤다는 것이다. 붉은색 부위의 경계에는 백색의 Wickham's striae가 관찰된다. 치

은에 존재하는 atrophic lichen planus는 상피가 파괴된 경우에는 특히 박리성 치은염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박리성 치은염은 몇몇 전신 질환의 불특정적인 치은 증상이다. oral lichen planus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감별진단은 oral lichen planus 환자의 1%정도에 발견되는 홍반 병소인데 이는 전암 병소이다. atrophic lichen planus와 비교해 볼 때 홍반증(Erythroplakia)은 매우 붉고 확실히 경계지워지며 약간 함몰된 양상을 띤다.

